

법우 송재섭 승무의 가치 연구

최석권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학과 전통무용전공 석사

A Study on the Seungmu of Bup Woo Song Jae-Sub

Seok-Kwon Choi

Master's, Department of Korean Traditional Arts Graduate School of Ar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법우 송재섭 승무에 관한 문헌연구이다. 승무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승무의 경우 비교적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나, 시도문화재로 지정된 법우 송재섭 승무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승무 예능보유자인 법우 송재섭의 생애를 파악하였으며 한국 전통춤인 승무의 춤사위, 진행장단, 무복무구 등을 살펴보고 법우 송재섭 승무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법우 송재섭의 승무는 부드러운 모습을 담아 내는 것이 특징이며, 자연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과정을 춤사위에 녹여 내었고,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다. 법우 송재섭의 승무는 겸손과 유연함이 춤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어 : 법우 송재섭, 승무, 대전광역시,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5호, 이매방, 최석권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for "Seung-mu" of Song, Jae-Sub, who has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5 by Daejeon City, performed by literature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fe and to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Bup-Woo Song Jae-Sub, the Seung-mu performer, and to supply the knowledge of the dance moves, rhythm, and materials of the Seung-mu. Song Jae-Sub's Seung-mu is characterized by a soft appearance, and the process of assimilation and conformity to nature is melted into the dance moves, and it contains the aesthetics of humility that puts the opinions of others before oneself. Furthermore, Song Jae-Sub's Seung-mu is characterized by his humility and flexibility expressed through dance.

Key Words : Bup Woo Song Jae-Sub, Seungmu, Daejeon Metropolitan City,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5, Lee Mae-Bang, Choi Seok-Kwon

1. 서론

한국 전통춤을 대표하는 승무(僧舞)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우리 민족공동체의 역사성을 담고 있는 종합예술이다. 우리나라 전통춤은 우리 민족의 규범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적 정서와 공동체의 역사를 통합적

으로 표현하는 문화결정체이다. 전통춤은 우리 민중의 삶이며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다. 승무는 한국 춤의 기본적인 춤동작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다른 전통춤에 비해 우리 춤의 미적 가치와 정서가 잘 묻어난다.

법우 송재섭의 승무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27호 우봉 이매방에 의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호남지역

*This paper is a summary of 'A Study on the Seungmu of Beopwoo Song Jae-Seop,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5 of Daejeon City' which is master's paper of Graduate School of Arts, Sookmyung University, 2021.

*Corresponding Author : Seok-Kwon Choi(csk1544@hanmail.net)

Received October 1, 2021

Revised October 25,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승무에 바탕을 두고 있다[1,2]. 법우 송재섭은 우수한 춤의 기량을 인정받아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다. 법우 송재섭의 승무는 대전광역시에서 전통춤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우 송재섭의 승무에 대한 의미 연구, 가치연구 등 그의 승무에 대한 조명이 되지 않았으며 학술적인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승무 예능 보유자인 법우 송재섭의 생애를 살펴보고 한국 전통춤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승무의 춤사위, 진행 장단, 무복 무구 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법우 송재섭 승무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법우 송재섭의 생애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 송재섭(宋在燮)은 1948년 대전시 용운동에서 태어났다. 송재섭은 대전을 대표하는 재지사족(在地士族)인 은진(恩津) 송씨(宋氏) 집안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으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1].

송재섭은 어려서부터 유달리 부끄러움이 많았으며 소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때에는 내성적인 성격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재능으로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담임 선생님이 어린 송재섭을 친구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뽐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멋지게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고 한다. 송재섭은 중학교 때 길을 걷다 우연히 전통춤 장단소리를 들었는데 국악 교습소인 김영균 국악원(당시 대전시 대흥동에 위치함)이었다고 한다[2]. 소년 송재섭은 전통춤 장단소리의 강력한 매력에 빠져 춤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송재섭의 나이는 열여덟살 이었다. 스무살 무렵 송재섭은 주말이면 국악교습소 선배와 대전 보문산으로 놀러가 그곳 전망대를 무대 삼아 춤을 추었다고 한다. 보문산에서 그의 춤을 보았던 대전 사람들 중 일부는 그에게 전통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들에게 송재섭은 전통춤 기본을 가르치기도 했다[1].

송재섭의 어머니는 남자가 춤을 춘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심한 반대를 하였고, 춤을 더 이상 출수 없었

다고 한다. 송재섭은 20대 중반에 불교에 귀의하며 정식 승려로 계를 받는다. 송재섭의 법명은 법우(法雨)이다. 송재섭은 승려가 된 후에도 전통춤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여전했다고 한다. 이런 자신을 보며 승려가 된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치를 전통춤을 통해 몸의 공양을 지어 올린다는 작법(作法)의 형태로 녹여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송재섭은 1980년대 후반 이매방 선생님(李梅芳, 1927년~2015년)의 제자가 되어 전통춤을 사사 받게 되는데, 1995년 6월2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이수자, 1998년 6월28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의 이수자가 된다[1]. 송재섭은 스승 이매방에게 사사 받은 전통춤(승무, 살풀이춤)을 대전충청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 크고 작은 전통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승무를 알렸으며, 후학을 배출하며 승무의 전승을 위한 노력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대전광역시에는 송재섭의 뛰어난 춤의 기량에 대한 인정과 대전시의 다양한 문화재 지정의 강력한 의지가 합쳐져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 시지정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는다. 법우 송재섭은 대전광역시에서 전통춤으로는 최초 무형문화재로 인증 받은 사례이다.

2.2 전통춤

전통(傳統)은 집단공동체에서 세대를 걸쳐 이어 내려오는 관념이나 풍습, 행위가 현재까지 연결되어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1]. 춤은 음의 흐름에 맞추거나 자연스럽게 생겨난 흥겨움에 신체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몸짓을 말한다[5-8]. 즉 전통춤은 각 집단공동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신체적 움직임으로 민족의 정서가 묻어나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민족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춤은 각 민족의 흥과 슬픔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정서 표출의 매개체로 표현되어 왔다. 전통춤은 각 나라만의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역사를 반영한다. 각 민족을 대표하는 동작을 구성한다고 하여 민속무용(民俗舞踊)이라고도 한다[4].

전통춤은 민족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즐기며 세대를 이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춤은 민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관념을 바탕으로 계승 및 전승되고 있으며 세대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10].

전통춤이 각 민족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민족공동체의 역사와 풍습을 반영 하고 있으며 민족공동체가 이해하고 수용 할수 있는 동일한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전통춤에서 등장하는 장단과 가락은 선대에서 후대로 무의식적 정서로 내려와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동화될 수 있고 흡수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1].

우리나라 전통춤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혼이자 정신이며 선조들의 삶의 기록이다. 우리나라 전통춤은 한(恨)의 정서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춤은 흥과 멋과 태를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의 결정체이다. 우리 전통춤의 표현은 밖으로 표출되는 표현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에서 본질적인 예술성을 찾을 수 있다[12].

즉 우리나라 전통춤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삶이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몸짓이자, 우리 민족의 한(恨)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 표현으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민족의 숨결로 정의 내릴 수 있다.

2.3 승무

승무는 한국 전통춤의 기본적인 동작이 모두 집약되어 있으며, 다른 전통춤에 비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철학이 잘 묻어나 있다[5-8].

승무의 기원은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불교 의식 무용 기원설로 승무는 불교의 작법(作法)의 한 부분이라는 것, 둘째, 민족무용 기원설로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속에서 승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 났다는 것, 셋째, 기방 예술 기원설인데 승무를 기방 문화의 장르로서 발전되었다는 설이다[1]. 세 가지 기원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료(史料)이며 정확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전통춤 승무가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와 민족의 정서를 전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승무는 춤사위와 복놀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무의 장단은 엮불타령(장단)으로 시작하여 도드리장단(반엮불), 타령장단, 자진타령, 흥겨운 느낌을 주는 굿거리, 북놀음, 다시 굿거리로 구성된다[1,2].

승무는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는 중용(中庸)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승무의 춤사위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네 가지 감정인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녹아나 있다[14-15]. 승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표현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발산하지 않으며 내면의

수양으로 정제된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승무는 내면의 몸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절제됨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다.

2.3.1 승무의 춤사위

승무의 동작은 예비동작, 연결동작, 주된동작, 후속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3]. 예비동작은 엮드림, 모음, 몸통비틀기, 여밈, 감기로 나눈다. 엮드림은 신체를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장삼을 바닥에 길게 편 상태에서 엮드려 있는 동작이다. 모음은 양손을 곱게 모으는 자세이다. 몸통비틀기는 엮드린 동작에서 상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다. 여밈은 손을 모아 장삼소매를 교차시켜 잡아끄는 동작이다. 감기는 손을 감는 춤사위로 한손은 아래로 다른 한 손은 위로 손을 감는 동작이다[7].

연결동작은 팔 올리기, 팔 일자 펴기, 팔 비스듬히 펴기, 걸치기, 퍼 넘기기, 활개펴기, 휘젓기 등으로 나눈다. 팔 올리기는 팔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올리는 동작이다. 팔 일자 펴기는 팔을 어깨높이로 평행이 되게 만드는 동작이다. 팔 비스듬히 펴기는 양팔을 아래로 비스듬히 펴는 동작이다. 걸치기는 짙어지는 춤사위이다. 퍼 넘기기는 장삼 소매를 아래에서부터 머리 위로 뿌려서 넘기는 동작이다. 활개펴기는 날개 짓하며 장삼을 펼치는 동작이다. 휘젓기는 바닥에 몸을 엮드린 채 좌우로 두 팔을 휘젓는 동작이다[12].

주된동작은 다양한 뿌림 동작으로 구성된다. 뿌림동작에는 꼬아서 뿌리기, 돌려서 뿌리기, 옆 뿌리기, 앞 뿌리기, 위 뿌리기, 뒤 뿌리기, 번갈아 뿌리기, 뛰어서 뿌리기, 감아서 뿌리기, 던져서 뿌리기 등이 있다[14].

후속동작은 멈추기, 팔 내리기, 꼬기 펴기, 치기 등으로 구성된다. 멈추기는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 특별한 춤사위는 없다. 팔 내리기는 서서히 팔을 내리는 동작이다. 꼬리 펴기는 학이 날개를 퍼드어 장삼 뒷자락을 두 손으로 천천히 펴는 동작이다[15].

2.3.2 승무의 진행 장단

승무의 진행 장단은 엮불장단으로 시작한다. 엮불 장단은 엮불타령이라고도 한다. 이후 반엮불이라고도 하고 도드리장단이라고 불리는 장단으로 이어지며, 타령장단, 자진타령, 굿거리, 북놀음을 거쳐 다시 굿거리장단으로 승무의 진행 장단은 구성된다. 굿거리장단은 우리 전통춤 기본 음악장단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하게 변주하며 변형이

많고 흥겨운 느낌을 주는 장단이다[12-15].

2.3.3 승무의 무복, 무구

승무의 무복은 남성의 경우 옥색 바지저고리를 입고 여성의 경우는 남색 치마를 입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 흰색 버선과 흰색 고깔을 착용한다[1-7].



Fig. 1. Bup Woo Song Jae-Sub's Seungmu Uniform

장삼은 흰색과 흑색 장삼이 있다. 장삼은 깃을 바깥으로 접어 고름을 등쪽으로 하여 매듭을 짓는다. 장삼의 소매 자락은 연무자(演舞者)의 체격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다. 장삼의 소매 부분은 승무진행에서 북놀음을 위해 팔 부분에 손을 빼서 북채를 집을 수 있도록 터놓았다. 장삼에 흥띠를 착용하는데, 법우 송재섭의 흥띠는 다른 승무 흥띠와 차이가 있다. 금박을 넣었으며, 금박 안은 청홍색으로 구성되는데, 청홍색 위에 새와 방아 짙는 토끼 문양이 수 놓아져 있다. 해당 부분의 의미는 일월광의 의미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한다. 흥띠 아랫부분에는 천(天)자와 왕(王)자가 새겨져 있는데 동서남북에 불교 정신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의미라고 한다[1].



Fig. 2. Characteristics of Bup Woo Song Jae-Sub's Seungmu Uniform

승무 무구로는 북, 북틀, 북채를 사용하며 사용하는 사람의 체격에 맞게 적절한 것을 사용 할 수 있다.



Fig. 3. Bup Woo Song Jae-Sub's Seungmu Dance Tool

2.3.4 법우 송재섭 승무의 이수자 현황

법우 송재섭은 2004년 4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2007년 10월 첫 이수자를 배출했다. 첫 이수자는 최석권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이다. 1기 이수자는 최석권 외 2명이 이수를 했다. 2기 7명, 3기 6명, 4기 6명, 5기 3명, 6기 2명, 7기 3명으로 2007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30명의 이수자가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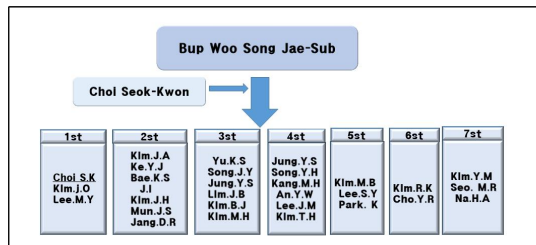


Fig. 4. Lineage of Bup Woo Song Jae-Sub's Seungmu

2.4 법우 송재섭 승무의 가치

법우 송재섭의 승무는 우봉 이매방선생의 호남류 승무를 바탕으로 한다. 법우 송재섭 승무는 이매방 승무(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지정)의 전형을 유지하며 2004년 4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법우 송재섭에게로 승무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법우 송재섭 승무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전의 지자체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전은 1989년 직할시로 승격했고 1994년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전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1호는 옷다리농악이다. 1994년 대전 앞은곳, 미친곳이 2호로 지정되었고, 4호는 유천동 산신제(1997년 지정), 5호는 장동산디마을탐제(1998년 지정), 6호는 불상조각장(1999년 지정), 7호는 소목장(1999년 지정), 8호는 매사냥(2000년 지정), 9호는 송순주(2002년 지정), 9-2호는 국화주(2016년 지정), 10호는 연화이씨가각색편(2000년 지정), 11호는 단청장(2000년 지정), 12호는 악기장(2002년 지정), 13호는 들말두레소리(2002년 지정), 14호는 가곡(2002년 지정)이 무형문화재로 인증 된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를 지정 하면서 광역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넓힘에 대한 시정 의지가 컸고, 이는 다양한 문화재를 지정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법우 송재섭의 문화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성이다. 승무에 대한 역사적 전승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며, 발생 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문화적으로도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설명한다. 송재섭은 이매방 승무의 맥을 이어 호남류를 대변하는 승무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학술성이다. 송재섭의 승무가 지니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말한다. 송재섭의 승무라는 춤을 통해 대전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 욕구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문화향유권을 넓히는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법우 송재섭의 공헌철학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우 송재섭의 승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시지정문화재로 보존을 한다는 것은 향토성보다는 대전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였다는 부분으로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문화재 지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대전시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 타 지자체와는 달리 앞선 문화재 지정 행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예술성이다. 예술성 이야말로 무형문화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관객들이 공감하고 공연자의 개성도 포함하는 예술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우 송재섭만의 승무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느낌 표현은 송재섭 승무의 예술적이며 표현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표성이다.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정도를 말한다. 대전 전통 가문 재지사족 은진 송씨의 후손으로, 법우 송재섭은 무용가로서도 춤의 기량이 월등하였고 대전을 대표하는

가문의 후손인 그가 전통춤으로 시지정문화재로 인정 받는다는 것은 대전의 역사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형유지이다. 전통춤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문화유산이다. 역사적 근거와 중요한 보존 가치를 바탕으로 전통에 기반한 창의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에 전통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변화를 인지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 하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전통춤이 되기 위해 기여 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에 법우 송재섭은 승무의 전형을 유지하여 승무의 세대 간 전승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법우 송재섭 승무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대전광역시의 전통춤 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시지정무형문화재로 인정함에 있어서 걸림돌 보다는 오히려 문화재 지정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지역환경적으로 지정 당시 대전시는 신도시였고 대전을 대표할만한 전통춤이 부재한 실정에서 시는 다양한 문화재 지정이 필요했던 요인이 작용했다. 이러한 부분은 대전광역시 문화재 지정의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에 반해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지 못한 채, 국가무형문화재와 동일한 종목이 시지정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지자체의 지정 의지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 부분 이다. 1962년부터 2015년까지의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은「문화재보호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향토성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무형문화재법」제정으로 지정기준의 변화(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기술성, 대표성, 전형성)가 있었고 기본의미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본원칙은 법우 송재섭 승무 지정 당시와 현재에 원칙의 차이가 있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독립 적인 법이면서 법우 송재섭 승무의 시지정무형문화재적 가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치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한다[1].

3. 결론

한국 전통춤 승무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에너지와 정신, 애환을 동시에 지니는 전통무용이다. 승무는 춤사위와 북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단은

염불장단으로 시작하여, 도드리장단, 타령장단, 자진타령, 굿거리, 북놀음에서 다시 굿거리로 춤사위가 마무리 된다.

범우 송재섭은 2004년 4월30일 대전광역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보유자로 인정을 받는다. 범우 송재섭의 승무는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의 호남지역 승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범우 송재섭의 승무는 자연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과정을 송재섭만의 부드러움으로 춤사위에 녹여 냈으며,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의 미학을 담고 있다. 범우 송재섭의 승무는 겸손과 유연함이 춤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범우 송재섭은 올 곧은 춤은 몸과 마음을 비움으로부터 나오며 춤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며 승무를 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인 범우 송재섭의 생애 및 그의 승무에 대해 살펴 보며 범우 송재섭 승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향후 범우 송재섭 승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길 기대 하며 이매방 승무를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전승 및 계승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범우 송재섭의 열정과 노력이 전통춤을 추는 후배 춤꾼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현재도 범우 송재섭은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급하고자 각 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그 예술적 철학, 전통춤에 대한 정체감 등 범우 송재섭의 전통무용인 으로서의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길 바라며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REFERENCES

- [1] S. K. Choi. (2021). *A Study on the Seungmu of Beopwoo Song Jae-Seop,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No.15 of Daejeon Cit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 S. J. Lee. (1978).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and the form of Kyunghyang Seung Moo and Honam Seung Moo.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7, 95-116.
- [3] C. J. Lee. (2017). *A Study on Beopwoo Song Jae-Seop of Daejeon Metropolitan City-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Assets No.15*. Daejeon: Daejeon Metropolitan City Publishing.
- [4] I. S. Kang. (2018).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Dance Field in National and City 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5, 49-69.
DOI : 10.22956/nihc.2018.5.003
- [5] N .R. Bae. (2016). Study of an Effect of Korean Dance for Middle-Aged Womens as a Culture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186-192.
DOI : 10.5762/KAIS.2016.17.12.186
- [6] N. R. Bae. (2017). Study of the Small Theater of Traditional Dancing as a Cultural Welfare.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7), 284-289.
DOI : 10.5762/KAIS.2017.18.7.284
- [7] N. R. Bae. (2017). A Study on Effect of the Children Culture Art Education Program Activity in Local Child Care Center-Focusing on Traditional dance program-.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15-123.
DOI : 10.5762/KAIS.2017.18.8.115
- [8] N. R. Bae & T. S .Cho.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Traditional Dance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Foster Care Children,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242-247.
DOI : 10.5762/KAIS.2017.18.12.242
- [9] Y. S. Kwon. (1999). *Study on the Technique and Style of LEE MAE-BANG's SUNGMU*, Master's degree dissertation. Dong Gook University, Seoul.
- [10] H. Jeon. (2020). The significance and category of cultural property, *Korean journal of public law assocition*. 21(4), 513-536.
DOI : 10.31779/plj.21.4.202011.017
- [11] M. Park & I. S. Kang. (2019). Changing Patterns in Dance Events According to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olicy, *Journal of the Folklore of Namdo*. 39, 175-199.
- [12] H. S. Baek. (2002). A Study on Dance Motions and Techniques of Sung-Mu-Focusing on Lee Mae-ba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7.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2), 487-498.
- [13] M. S. Song & H. S. Song. (2014). Humanistic Approach and Basic Dance Motions for Integrated Korean Dance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dance*. 32(1), 133-162.
DOI : 10.15726/jkd.2014.32.1.007
- [14] M. Y. Lee. (2006). Emotion and Aesthetic Sense in Lee Mae-bang's "Seungmu" Movement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49, 259-281.
UCI : G704-000824.2006.49.49.003

- [15] E. S. Kim. (2007). A comparative study on motions of Buddhist dances of Kyunggi and Honam Province. *Journal of Korean Dance History*, 6, 119-147.
<https://www.earticle.net/Article/A56852>

최 석 권(Seok-Kwon Choi)

[정회원]



- 2018년 8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 2021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전통예술 학과 전통무용전공(예술학석사)
- 2015년 3월~현재 : 대전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15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 관심분야 : 전통춤, 승무, 문화복지, 문화 대중화
- E-Mail : csk1544@hanmail.net